

"좋은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김건수 교장 선생님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수험생은 시험을 앞두고 손톱이나 머리를 깎지 않으며, 어떤 운동 선수들은 시험을 앞두고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고 한다. 나도 언제부터인가 손을 씻을 때 비누칠을 두 번하는 습관이 있다. 여성용 승마복(riding habit), 수녀의 의복(monk's habit)과 같은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습관(habit)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복이나 옷감을 의미한다.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입고 있는 의복과 같다.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의 품위를 판단하듯이 습관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쁜 습관은 배기 쉬우나 그런 습관을 지닌 채 성공하기는 어려운 반면, 좋은 습관은 길들이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몸에 익히면 성공에 다가서기 쉽다. 성공적인 삶을 결정하는 좋은 습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친절을 몸에 익혀라. 친절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경치가 좋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한 작은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다. 빈방이 하나도 없던 어느 비오는 날 밤, 그는 비에 흠뻑 젖어 들어온 어느 노부부의 딱한 처지를 외면하지 않고 친절하게 자신이 목을 방을 내어 주었다가 훗날 노부부로부터 뜻밖의 초청장을 받고 뉴욕으로 갔다. 노부부는 그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유명한 특급호텔 아스토리아의 사장직을 넘겨주었다. 호텔 직원으로서 보여준 그의 친절한 태도가 만들어 준 선물이었다. 친절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늘 주위의 신망을 받게 되며, 언젠가는 뜻밖의 운명을 만나게 될 수 있다.

둘째, 긍정적인 언어습관을 만들어라. 요즘 학생들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자신도 모르게 욕이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단어들은 잡초 뽑듯 하나 둘 걷어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표현 습관을 길들여 보자. 존나, 찌질이, 사기꾼, 꼴통, 안돼, 없어 등의 말을 사용하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시간 없니?'를, '시간 있니?'로, '안 되나요?' 하지 말고, '할 수 있지요!'로 바꿔보자. 이왕이면 노래도 긍정적인 가사를 가진 것을 부르자. <마지막 잎새>,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왕년의 가수 배호와 차중락은 젊은 나이에 정말 낙엽처럼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나도 한때는 조용필의 'Q'라는 노래를 즐겨 부른 적이 있는데 '너를 마지막으로 나의 청춘은 끝이 났다. 우리의 사랑은 모두 끝났다.'라는 부정적인 가사를 알고는 다시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주옥같은 가사가 많은데 굳이 우울하고 불행을 담은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겠는가.

셋째, 예의 바른 동산인이 되자. 우리 학교는 3년 연속 '인천시교육청 지정 효체험프로그램 중심 학교'로 세족식, 아버지의 날 등을 운영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에게는 물론 학교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인사 잘하는 예의 바른 동산인상을 심어가고 있다. 학교를 방문하는 손님들 중에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나 중역들도 있을 것이다. 이분들이 회사에 직원을 채용할 일이 있을 때, 이왕이면 예의 바른 동산고 졸업생을 채용할 것이다. 웃는 낯으로 공손히 인사하는 태도에 성공의 열쇠가 숨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세살 버터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릴 때, 청소년기 습관은 중요하며 습관을 바꾸려면 반드시 굳은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노력 없는 습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력이 습관이다.



東山이여 너를 품어 줄 터라